

브라질전 참패 흥명보호, 외박 후 재소집해 파라과이전 준비

지난 10일 브라질전서 0-5 대패 휴식 통해 재정비... 12일 재소집 오는 14일 파라과이와 맞대결

흥명보호가 브라질전 대패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파라과이전 준비에 돌입한다. 짧은 휴식을 통해 재정비한 뒤 다시 모인 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의 10월 A매치 친선 경기에서 0-5 대패를 당했다.

9월 A매치 미국 원정에서 성공적이었던 평가를 받았던 스리백을 이날도 가동했으나, 이스테방(첼시), 호드리구, 비니시우스(이상 레알 마드리드)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앞세운 브라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로써 한국은 브라질과의 역대 전적에서 1승8패를 기록,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는 14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8시 펼쳐지는 파라과이전을 준비하는 흥명보호다.

흥명보호의 주장이자 브라질전에서 A매치 통산 137경기를 기록하며 한국 A매치 출전 최다 기록을 작성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은 경기 후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인 강팀과 부딪쳐보고, 넓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선수들이어서 어려운 상황도 쉽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 점을 분석하고 겸손하게 배운다는 느낌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패는 결과 등) 이런 거에 넘어질 시간도 없다. 푹 푹 털고 일어나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팬분이 오늘처럼 응원해 주시면 큰 책임감을 갖고 화요일 경기에서 조금 더



10일 서울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 10월 A매치 친선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마친 대한민국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말처럼 흥명보호는 다시 파라과이전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재정비에 돌입한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은 브라질전 종료 이후 곧장 하루 외박을 갖는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할 예정이다.

이후 12일 오후 재소집해 파라과이전을 준비한다. 훈련 장소는 향후 공지된다

한다. 브라질전에선 실험 중인 스리백이 속수 무책으로 당했지만, 파라과이전에서 다시 한번 가동할 전망이다.

흥명보 감독은 브라질전 이후 "(브라질전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한 팀과 붙어 많은 것을 배운 경기"라며 "결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라과이도 남미를 대표하는 팀이지만, 브라질만큼 강한 상대는 아니다.

FIFA 랭킹 37위로 23위인 한국보다 순위가 떨어진다.

역대 전적에서도 2승4무1패로 한국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한다.

또 파라과이는 10일 일본 원정에서 일본과 2-2 무승부를 거두, 해를 만난 팀으로 볼 수 있다.

재정비 이후 다시 뛰는 흥명보호가 파라과이전에서는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지 관심이이다.

/뉴시스



임종언(가운데)과 황대현(왼쪽)이 11일(현지 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5-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남자 1500m 결승 경기 후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종언은 2분16초141로 금메달을, 황대현은 2분16초293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시스

쇼트트랙 임종언, 1차 월드컵 1500m 우승

김길리 여자 1000m·황대현 남자 1500m 은메달

한국 남자 쇼트트랙 기대주 임종언(노안고)이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종언은 12일(한국 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16초14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결승에 출전한 황대현(강원도청)은 2분16초593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딸다.

지난 4월 치른 국가대표 선발전에 서 남자부 전체 1위로 첫 성인 대표팀

에 뽑힌 임종언은 월드컵투어에서 첫 금메달을 수확하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금빛 질주에 성공했다.

최민정(이상 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 노도희(화성시청)가 뽑힌 여자 대표팀은 여자 3000m 결승에서 4분07초318의 기록으로, 네덜란드(4분07초350)를 제치고 우승했다.

김길리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25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뉴시스

역도 박혜정, 허리 통증 딛고 2년 만에 세계선수권 우승

송영환 3위... 한국 역도, 함께 기준 메달 순위 공동 5위... 전체 메달은 6위

한국 역도 간판 박혜정(고양시청)이 2025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최중량급(86kg 이상)에서 우승했다.

박혜정은 11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피르데에서 열린 대회 여자 86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5kg·용상 158kg·합계 283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에 올랐다.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함께 기록만 메달을 주지만, 세계역도선수권은 3개 부문 모두 메달이 걸렸다.

이로써 박혜정은 금메달 3개를 독식했다.

박혜정은 이날 허리 통증을 안고도 압도적인 기량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원원(중국)과 2024년 바레인 대회 챔피언 리엔(중국)이 불참해 박혜정을 견제할 선수가 없었다.

중국의 신에 주린한은 5위(인상 116kg·용상 150kg·합계 256kg)에 그쳤다.

2위는 쿠바의 마리펠리스(인상 118kg·용상 157kg·합계 275kg), 3위는 미국의 메리 타이슨-라렌(인상 115kg·용상 154kg·합계 269kg)이다.

박혜정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고, 2024년 마나마 대회에선 2위에 오른 바 있다. 세계선수권에선 개인 통산 두 번째 챔피언 타이틀이다.

박혜정은 우승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자신있게 노르웨이에 왔다. 하지만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져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경기를 시작했다"며 "경기 당일에도 통증이 재발해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경



역도 박혜정, 2년 만에 세계선수권 최중량급 우승.

사진=대한역도연맹 제공

기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했다"고 적었다.

이어 "항상 시합에 나설 때 모든 선수가 나와 같은 조건에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임한다. 이번 경험 또한 큰 배움이 됐고, 앞으로 더 단단히 성장할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통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건 아니다. 길으면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한다"며 "상대의 아픔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며 함께 출전한 선수를 예우했다.

남자 최중량급(110kg 이상)에선 송영환(충천군청)이 인상 175kg, 용상 235kg, 합계 410kg을 들었다.

인상에서 7위에 그쳤지만 용상에서 3위에 올랐고,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 3

위를 차지했다.

같은 체급에 나선 이양재(아산시청)는 합계 405kg(인상 180kg·용상 225kg)으로 4위를 기록했다.

우승은 아르메니아의 바라즈다트 라리안(인상 211kg·용상 250kg·합계 461kg)이다.

한국 역도는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함께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해 함께 메달 순위 공동 5위에 올랐다.

인상과 용상, 합계 총 메달 순위는 6위(금 3개·동 3개)다.

앞서 박혜정, 송영환과 함께 순번호가 남자 79kg급 용상에서 동메달 1개를 딸다.

한편 북한은 합계 메달(금 5개·은 3개·동 1개)과 인상·용상·합계 전체 메달(금 17개·은 5개·동 1개) 순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 중도금 무이자 +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종 운영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종 GS건설 | (주)인한/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